

# 日本の 水産物市場論의 展開過程과 市場動向 - 產地市場 動向을 中心으로 -

張 瑛 秀\*

## The Development of Fish Market Theory and Market Trends in Japan - Market Trends in the Production -

Jang, Young - Soo

目 次

1. 序 言	1) 1970년대의 漁業展開의 特徵
2. 水産物流通·市場論의 展開過程	2) 1970년대의 產地市場動向
(1) 漁民의 主體성 회복과 共販論	(2) 1980년대이후의 產地市場
(2) 流通機構의 生産力的 發展段階論	1) 產地市場의 양륙동향
(3) 都市構造의  변화등 消費·需要側을  중시한 問題提起	2) 大型產地市場의 出荷構造변화
(4) 市場外流通의 展開論理	4. 產地加工에 있어 輸入原料供給條件의 強化
(5) 產地市場의 再編成과 產地加工論	5. 消費市場의 諸動向과 產地加工
3. 大型產地市場의 動向과 特徵	6. 결언을 대신하여
(1) 1970년대의 產地市場	Abstract

### 1. 序 言

산지시장은 漁業生産의 基点으로 어업생산물의 양륙과 商品價値의 일차적인 實現場으로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存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어업생산의 확대전개와 함께 산지시장의 대규모화와 양륙물의 처리기회화도 도모되어져 온 것이다. 이같이 산지시장의 性格은 양륙물을 前提條件으로 하면서 산지어시장의 역할에 의해 크게 규정되어져 왔으며, 산지어시장은 시장도매업자(주로 漁業協同組合), 선어출하업자, 산지가공업자, 지역소매판매업자 등과 같은 產地商業資本의 機能·役割에 의해 그 存在價値가 발휘되어져 왔다. 또한 산지시장 배후에는 양륙된 어획물의 商品價値保持와 附加價値附與를 위해 冷凍冷藏庫 등과 같은 加工施設資本이 배치되어져, 산지시장은 어업생산의 확대전개에 있어 일등공신과 같은 존재이었다.

\* 東京大學(日本學術振興會 特別研究員)

그러나 近年에 들어 이상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해 온 산지시장에 異常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단순하지 않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內在하고 있다. 異常현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산지에 存立하고 있는 어시장, 商業資本, 冷凍冷蔵庫와 같은 관련자본·설비등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어시장의 양륙물을 前提로 해 왔으나, 近年에는 從來와 같은 前提條件은 이미 크게 무너지고 있다는 점. 둘째로, 從來와 같이 산지어시장의 양륙량감소는 어획물의 가격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현상이지만, 近年에는 양륙량감소와 산지가격 하락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셋째로, 從來의 輸入수산물은 비교적 고급어종을 중심으로 하는 고급 소비재적인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었지만, 近年에는 산지양륙물을 대신해서 가공원료를 중심으로한 수입수산물인 산지시장에 대량으로 반입되고 있어 今後の 行방이 주목되고 있다. 넷째로, 末端市場側에 있어 종래와 같은 鮮魚小賣전문점 등은 쇠퇴하고, 이와는 반대로 가공식품의 증가와 대형슈퍼를 중심으로 量販店의 확대증가, 外食産業의 성장 등 消費市場 構造는 현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소비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末端消費側의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末端流通資本의 산지시장의 직접 介入 등과 같이 諸형태로 산지시장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本論文은上記와 같은 현상을 특히 日本의 大型産地市場의 오늘날적인 現象의 特徵으로 간주, 산지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水産物市場의 構造변화를 지금까지의 水産物流通·市場論의 연구사적시점 위에서 정리하면서 그것이 실상 현상면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 이행되어져 왔고, 그 이행과정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그 배경에 內在하고 있는 諸論理를 考察하여 보고자 한다.

## 2. 水産物流通·市場論의 展開過程

일본에 있어 水産物流通·市場論에 관한 연구의 전개과정에 있어 주된 연구과제와 도달성과를 시대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漁民의 主體性 回復과 共販論

수산물유통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0년대 후반부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수산물 유통문제의 관심은 漁民의 主體性 回復이란 시점에서 漁民과 前期的 商業資本의 관계규명 그리고 이같은 시점의 연장위에서 漁業協同組合(이하 漁協)의 共販論에 관한 연구가 지배적이었다. 특히 岡本清造는 산지에 존재하고 있는 商業資本의 前期性(수탈적 상업자본)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고, 黑澤一清은 小生産漁民의 경제적인 지위상승의 일환으로서 漁協이 어업권 관리기능에서 共販運動을 주로하는 경제사업에 전개 변용해 가는 과정을 규명하고 있다<sup>1)</sup>. 특히 여기에서는 당시 산지에 있어 어획물의 판매과정 대부분이 도매시장제도를 통해 거래되게 되었고 특히, 漁協경영의 산지어시장이 지배적으로 됨에 따라 前期的商業資本이 어업자를 부당히 수탈하는 현상은 현저히 줄어

1) 岡本清造 「水産物流通機構の問題」, 『淡路島の活魚市場機構』(1952년, 水産研究会), 黑澤一清 「現段階における漁業協同組合共販運動の一断面」 『商品流通と協同組合機能』(1958년 4월, お茶の水書房) 89-106, 渡邊宏彦 「漁獲物流通機構の變化と漁協共販」 『同書』 77-88를 참조.

들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漁協의 共販形態는 주로 근대적 유통기구 정비에 따른 산지어시장의 委託판매로, 직접 前期的 上입자본과 대항하는 買取販賣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지만 小漁民의 불리한 지위가 시정되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따라서 당시의 上입자본에 대한 “小生産자의 自立化”에 주목한 일련의 연구는 실태규명과 문제제기가 적절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2) 流通機構의 生産力的 發展段階論

1960년대 후반부터는 앞서 설명한 연구시점의 연장선 위에서 근대적 유통기구의 정비와 함께 前期的 商業資本으로부터 自立한 어업生産자의 生産규모확대와 자본축적을 통한 生産자의 生産力發展에 의해, 종전의 “商業資本에 의한 産業資本의 지배단계”에서 “産業資本(어업生産자)이 商業資本을 지배”하면서 발전해 간다는 生産力的 發展段階論을 想定한 流通機構論이 전개된다. 다시말해 流通機構는 前期的 商業資本을 중심으로 하는 買占商業機構에서 都賣商을 중심으로 하는 問屋制市場機構로 변천해 가고, 그 다음 단계로 生産者의 지휘향상과 주체성 회복 단계로서 유통기구는 今日的形態인 都賣市場機構로 발전하게 되고, 더욱 나아가서는 生産者의 完全독립성장과 自立形態의 연장위에 水産物流通機構는 生産者에 의한 直送直販機構形態로 발전 변천해 간다는 視点에서, 長谷川彰는 都賣市場機構의 存在意義를 역사적인 과정의 産物로서 간주하는 水産物流通機構의 發展段階論을 논한다<sup>2)</sup>.

특히, 直送直販機構는 生産자의 경제적 성장을 기초로 산지시장에서의 판매를 중지하고 직접 소비지에 出荷하면서 전국시장과의 결합을 生産자 자신이 행한다는 산지시장기구의 포기와 소비지시장기구의 直販기구화가 형성되어져 가는 수산물유통기구발달의 최종단계형태로서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水産物流通機構의 進化論적 시점에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시대를 같이 하면서 上記와는 시점을 별도로 하는 水産物産地流通에 있어 산지어시장의 기능, 특히 그 기능 담당자로서 산지중매인 등과 같은 産地商業資本의 역할·기능에 대한 재평가 문제가 倉田亨에 의해 제기된다<sup>3)</sup>.

## (3) 都市構造의 변화등 消費·需要側을 중시한 問題提起

1970년대 후반부터 수산물유통연구는 生産側을 중시한 從來의 연구시점과 달리하는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도시구조의 거대화 다변화를 중시하면서 ① 대도시의 物價問題 규명, ② 종래의 鮮魚형태에서 冷凍加工형태 등을 중심으로 하는 水産物供給형태의 변화, ③ 수산물소매형태의 量販化 多樣化 등 消費市場構造의 변화를 포함하는 消費·需要側을 중시한 문제제기가 새롭게 대두하게 된다. 秋谷重男은 生鮮食料品 流通機構의 근대화 方策으로서 기능해 온 도매시장기구의 諸機能에 관하여 일

2) 長谷川彰 渡邊宏彦 『市場制度に關する研究』(1956年, 水産研究會), 長谷川彰 「水産物流通機構の形態と性格」 『漁業經濟研究』 第24卷 第3・4合併號(1979年 3月)를 참조바람.

3) 倉田亨 「産地流通加工據點整備と漁協の役割」 『西日本漁業經濟論集』 第17卷(1976年), 「鮮魚行商小賣業者の實態と機能」 『農林業問題研究』 第4號(1965年 12月)를 참조바람.

정의 평가를 하면서, 中央都賣市場이 거대도시의 유통공급기점으로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sup>4)</sup>. 특히 여기에서 今後 中央都賣市場의 기능 역할과제로서 小賣商業構造의 변화 즉 전문鮮魚소매점 등의 후퇴, 대형슈퍼·生協(生活協同組合이 운영하는 비교적 종합형태의 소매점)등과 같은 量販店의 성장, 外食産業의 확대와 같은 末端需要側の 行動변화에 앞으로 中央都賣市場이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수산물의 供給形態가 鮮魚형태에서 冷凍加工형태로 취급형태상의 변화가 생겨나고 있고, 生産者·出荷者の **Bargaining Power**(교섭력)의 강화, 마구로(주로 횡감용 참치), 새우(주로 수입냉동새우)와 같이 일부 수산물에 있어서의 全國市場형성, 大手資本의 수산물 유통에의 개입확대 등을 배경으로 市場外流通문제가 주목되게 된다.

#### (4) 市場外流通의 展開論理

특히 1980년대에는 物價問題와 流通經路의 多元化 등, 都賣市場流通(制度流通)과 市場外流通의 실태과악이 수산물유통의 중요과제로서 대두되게 된다. 廣吉勝治는 마구로, 새우, 연어類를 중심으로 하는 市場外流通의 실태와 展開論理가 從來의 流通機構 發展 段階論으로 전개된 생산자側の「直送直販」論리와 달리하고 있는 점을 규명하면서, 수산물시장이 冷凍加工品을 基軸商品으로 하면서 市場外流通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과 生鮮品을 基軸商品으로 하는 都賣市場流通이 전개되는 2極化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都賣市場機構가 自己再編해 가는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sup>5)</sup>.

다시말해, 도매시장기구(특히 소비지 도매시장기구)가 경제적 발전 전개 단계에 있어 적절한 시장 메카니즘으로서의 재편요구(일반적으로는 시장기구의 존재의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남)와 함께 충분한 대응성과는 별도로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대응의 한계성)와 같은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論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는 수산물 유통문제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中間流通문제로서 규명하고 있어, 어업생산과 산지시장 등 수산물의 生産供給部門을 포함한 수산물시장 문제로서 논하였던 것은 아니다.

한편 1980년대에 들어서 200해리체제 이후의 어업생산구조는 減産체제에 따른 마이너스 영향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그와는 반대로 輸入수산물은 확대증가하기 시작한다. 이와같이 수산물공급을 둘러싼 諸環境은 이미 상당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產地市場의 再編成과 產地加工論

1980년대 중반부터 漁業의 擴大再生産 한계가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상황하에 있어 產地市場間에는 양육물의 유치확대 경쟁이 표면화되고 있었다. 특히 200해리의 영향을 직접받은 산지는 양육량의

4) 秋谷重男「中央都賣市場“セリ”の功罪」(日本經濟新聞社, 1981年), 「産地直結」(日本經濟新聞社, 1978年)를 참조.

5) 廣吉勝治「水産物における流通支配の實態とその價格形成メカニズムにあたる影響について」(東京都民生活局, 1978年 6月), 「市場外流通の實態とその都賣市場におよぶ影響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全國中央市場水産物都賣業者協會, 1980年 1月), 「水産物都賣市場機構再編成の現段階的性格」『漁業經濟研究』第26卷第4號(1981年 12月)를 참조.

감소에 따른 산지시장의 縮小再編이란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漁業生産體制가 從來의 원양에서 정어리 어획을 중심으로 하는 沖合(OKIAI)漁業(소위말해 近海漁業적인 성격)어획물의 양육확대를 도모하면서 다른 産地와의 규모차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産地도 나타나, 産地市場에 있어 縮小와 擴大再編이 엇갈리는 分化경향이 보이기 시작하게 된다. 이와같이 수산물 공급부분의 기본출발점인 어업생산과 양육의 변화현상을 산지시장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로서 간주하는 연구가 시작하게 된다. 廣吉勝治는 大規模漁港을 중심으로 양육량의 확대 축소정도와 기능분석을 통해 산지시장의 分化경향을 類型的으로 연구분석하고 있다<sup>6)</sup>. 예를들면, HACHINOHE(八戸), KUSIRO, ISHINOMAKI(石巻), YAIZU(焼津), SAKAI(境), CHOUSHI(이하 산지위치는 後掲 그림1을 참조, 일본고유한자는 로마식으로만 표기)등은 發展的産地로서 「大規模總合型」으로 규정하고 있고, WAKANAI(稚内), SIOKAMA(鹽釜), NAGASAKI(長崎), SIMONOSEKI(下關)등은 停滯的産地의 특징적 예로서 「地域거점형산지」로 分化해 간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1980년대후반 漁業經濟學會는 「日本漁業의 國際化와 流通 消費構造의 變化」라는 Thema로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된다<sup>7)</sup>. 여기에서 賓田英嗣는 近年에 있어 산지의 양육량 감소문제와 함께 산지시장간의 양육유치·확대경쟁의 심화현상 안에서 生鮮輸入水産物의 취급을 今後의 산지시장 存立條件으로서 보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산지시장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方策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실제 산지어시장의 鮮魚輸入수산물의 양육한계는 취급량 감소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종전의 어업생산자를 위한 산지어시장이란 범주를 뛰어 넘은 움직임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上記와 같이 廣吉와 賓田의 연구는 산지 시장간의 기능·구조격차가 양육량의 규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그 연구대상을 산지어시장에 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비해 秋谷重男은 산지에 존립하고 있는 水産加工業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sup>8)</sup>. 산지의 양육량 감소에 따라 그 지역의 水産加工業은 가공원료를 그 地域外原料 특히, 輸入原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産地加工과 지역 생산지시장의 양육과의 無關係化현상을 분석 규명함을 통해 本來 「原料立地型」적인 産地加工의 性格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시점에 서서 산지시장 문제를 논하고 있는 일련의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지역 산지어시장의 양육량 감소 내지는 국내 가공원료의 감소에 따른 가공원료 공급조건을 변화시켜 지적 강조하고 있다<sup>9)</sup>. 그러나 이같은 시점에 선 일련의 연구는 現段階의 산지시장의 구조문제를 어업생산에 의한 供給部門 즉, 산지의 양육량감소문제에 지나치게 치우친 나머지 연구분석 범위를 供給條件의 변화와 산지시장의 관계측

6) 廣吉勝治 「大型産地市場の再編成と水産物流通政策の課題」 『漁業經濟論集』 第26卷(1985年 8月)

7) 漁業經濟研究 第34卷 第1・2合併號(1987年11月)에는 第36回大會 심포지움 특집으로 「日本漁業の國際化と流通・消費構造の變化」를 게재하고 있다. 여기에서 小野征一郎은 日本漁業의 국제화에 관해 논하고 있고, 多屋勝雄는 영高의 水産物需給構造에의 영향을, 廣吉勝治는 水産物貿易構造의 현상과 전망에 관해, 賓田英嗣는 영高와 水産物流通變化에 관해 論하고 있다.

8) 秋谷重男 「水産物の需要構造」 『漁業經濟研究』 第35卷 第2・3號(1991年 2月)

9) 廣吉勝治 「水産加工業の振興の方策に関する調査報告書」(下關市, 1986年 2月), 「21世紀における冷凍品流通の展望PART・1」(東京水産振興會, 1989年), 「同上PART・2」(1990年), 中居裕 「水産加工業における構造變動と動態變化」 『公庫月報』 第502號(農林漁業金融公庫, 1992年 10月)등을 참고.

면에 한정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需要側인 消費市場構造는 量販店의 성장확산과 外食産業이 확대 전개되어 가는 상황을 기조로 輸入수산물 도입 등 독자적인 강력한 원료 구매력을 가지면서 市場支配를 도모하는 末端大手流通資本에 의해 크게 再編成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은 수산물 유통을 둘러싼 諸環境의 변화속에 供給側인 산지시장이 어업생산에 따른 지역어시장의 양륙과 배분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산지측 論理만에 의해 변화하고, 변화해 간다고는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量販店과 같은 末端流通資本이 산지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든지 消費·需要側의 대응변화가 產地供給側에 역으로 영향을 주는 측면이 표면화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말해 末端側의 論理를 포함한 전체 동향을 시야안에 두는 폭넓은 시점으로 수산물유통 특히 產地市場의 構造再編成論理를 규명해야 한다는 인식이 종래의 연구에는 결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 3. 大型產地市場의 動向과 特徵

本論文안에 사용하고 있는 「產地市場」은 以下와 같은 産地의 諸機能을 전부 포함한 총체적인 개념이다.

- ① 漁業生産과 직접 연결되는 양륙 및 양륙물의 거래기능(즉 漁港, 産地魚市場 機能).
- ② 加工業者와 出荷業者의 存在에 의한 양륙물의 처리, 가공, 集出荷 기능.
- ③ 양륙물 및 가공제품 등의 일차보관 기능(즉 Stock Point의 존재).
- ④ 양륙물 운송 등의 物流機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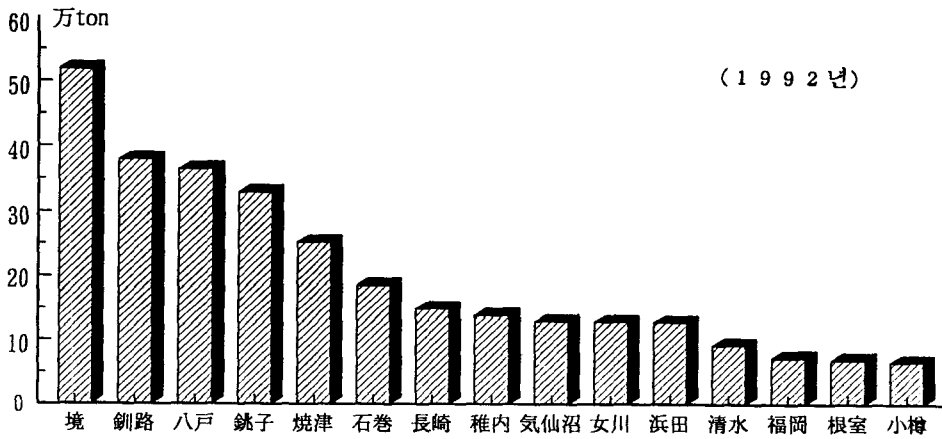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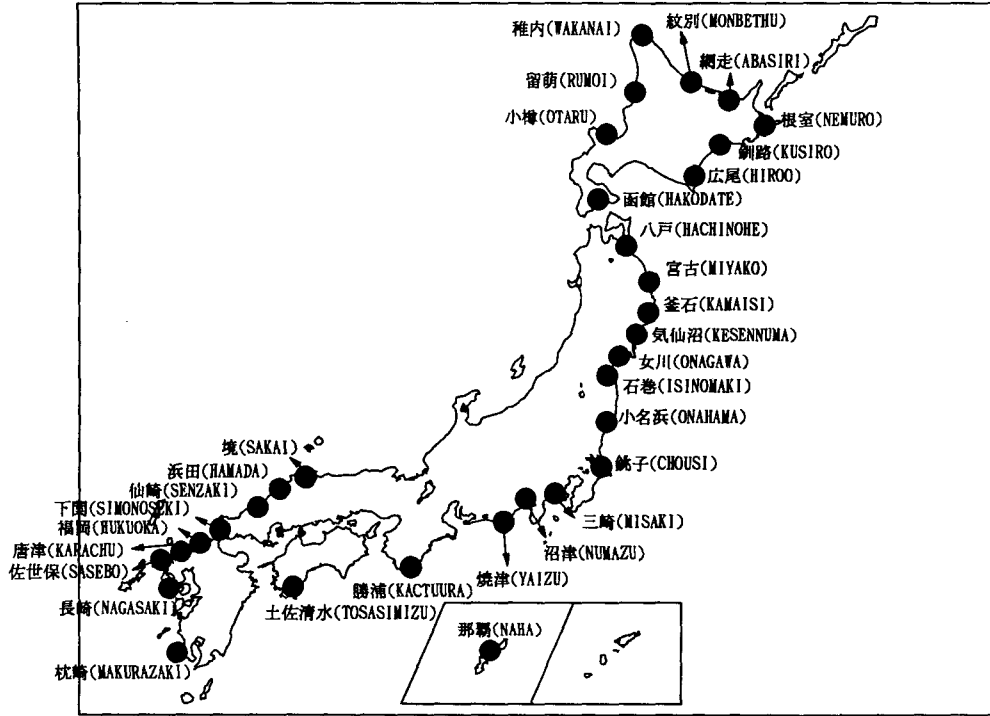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개념으로서 산지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論稿를 전개하고자 한다.

현재 日本전국에 漁協(漁業協同組合)과 漁連(보통 縣의 漁業協同組合連合會)이 개설하고 있는 魚市場數는 876개소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第8次 漁業센서스 1988년). 또한 NAGASAKI(長崎), ISINOMAKI(石巻)와 같은 地方公設魚市場은 漁協이 아닌 民間株式會社가 도매인으로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산지어시장도 있다.

<그림 1>은 일본의 주요 산지어항의 위치와 양륙량을 나타내고 있다. 양륙량이 50만톤을 넘고 있는 SKAI(境)를 최고로 30만톤에서 40만톤사이의 KUSIRO, HACHINOHE(八戸), CHOSI 등은 대규모산지 중에서도 상당한 양륙량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근한 예로 한국 최대의 산지어 시장인 부산공동어시장은 近年 약25만톤에서 30만톤사이의 양륙실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上記의 산지어시장규모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以下 本論稿에서는 주로 이들 산지의 전개과정과

10) 예를들면 산지에 있어 원료공급구조의 변화 및 수입원료증가에 주목해 산지의 새로운 문제를 해명하려고 하는 注 8, 9에 개제한 종래의 論稿 내지 현상분석에는 산지가공側이 「脫資源」을 계기로 어떻게 재편되어 가는 가 그리고 어떠한 존립조건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석연구가 되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에 관해 본인은 末端側 論理를 시야에 두고 上記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산지시장의 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張炭秀 「大型産地における水産加工業の展開と構造再編の動向」 『漁業經濟論集』 第34卷 第1號(1993年 8月), 「産地加工經營の構造再編の動向と特徵」 『漁業經濟研究』 第39卷 第1號(1994年 6月)를 참고 바람.

日本の水産物市場論의 展開過程과 市場動向



產地漁港

<그림 1> 일본의 주요 產地漁港의 위치와 양특량

資料: 農林水産省 『水産物流通統計資料』로부터 작성.

구조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 (1) 1970년대의 產地市場

## 1) 1970년대의 漁業展開의 特徵

1970년대에 있어 大型產地를 중심으로 하는 水産物產地市場의 諸動向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 우선 그 배경이 되고 있는 漁業展開構造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本來 수산물산지시장은 어업 생산의 전개기지로서 또는 어획물의 가치실현의 장으로서 그 存在意義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산지시장구조의 특질을 파악함에 있어 어업생산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면서 전개하여 왔으며, 그것이 거시경제 상황이나 소비경제구조의 특질 등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는 상당히 중요한 체크포인트라 할 수 있다.

종래의 漁業經濟研究에서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日本의 고도성장기의 漁業生産의 展開特性을 漁船의 大型化, 소위 말하는 「沿岸에서 沖合로, 沖合에서 遠洋으로」라는 슬로건이 말해주다시피 외형적 擴大再生産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같은 확대 재생산정책에 의해 어업총생산량은 1950년대 500만톤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1960년대 후반에는 900만톤대에서 1,000만톤 가까운 수준까지 확대성장 하였다. 특히, 당시 초기의 市場條件은 아직 국내소비시장보다 수출시장이 중심이었으나, 고도성장기를 통해 산업경제발전에 따른 고용확대와 소득증대 등으로 국내 수산물시장은 크게 확대되고, 국내소비魚價의 상승률이 상당한 「인플레이션적인 시장구조」로 불리워지는 상황에서 어업은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게 된다<sup>11)</sup>.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日本經濟는 크게 세가지 국면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로는 1971년의 Doll Shock(이것을 계기로 1Dollar=360엔의 固定上場制에서 變動上場制로 移行되었다)를 들 수 있고, 둘째로 1973년의 第1次 석유파동, 셋째로 1979년의 第2次 석유파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1970년대에 있어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이 1960년대부터 漁業의 高度成長을 뒷받쳐 온 「市場條件」에 브레이크를 건 것은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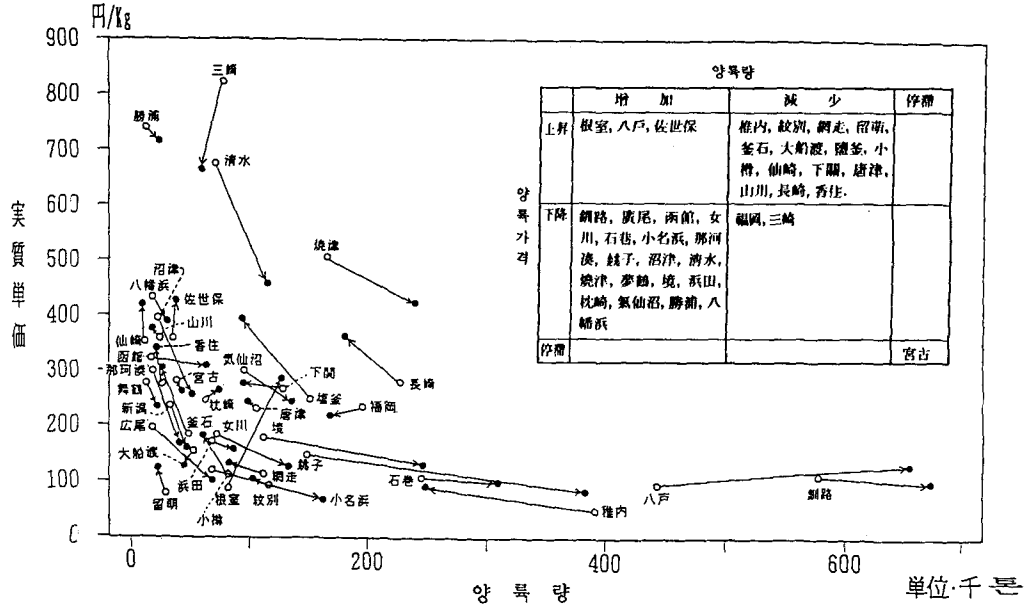
한편 1970년대 후반에 발생한 국제해양의 200해리체제는 종래의 어업생산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은 커다란 사건임은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당시의 원양어업은 1973년의 최고400만톤수준(총어획량의 약36%수준)까지 생산확대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는 200해리의 영향을 직접 받아 재차 200만톤대(총어획량의 15%정도의 수준)로 격감하게 된다. 이에 반해 沖合漁業은 1960년대의 300만톤대에서 1970년대의 500만톤대 수준까지 상당한 어업생산확대를 보인다. 다시 말해 이같은 현상은 1970년대는 명태를 중심으로 하는 遠洋漁業의 쇠퇴과정과 정어리 등의 대량어획을 특색으로 하는 沖合漁業의 확대과정으로 요약될 것이다. 이같은 어업생산의 전개과정 특징은 주요 산지시장의 양륙량·양륙어종의 변동과 대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 2) 1970년대의 產地市場 動向

<그림 2>는 1970년대에 있어 年間3만톤 이상의 주요漁港別 양륙량과 양륙가격(엔/kg, 산지어시

11) 이점에 관해서는 大海原宏「戰後日本漁業の生産力展開」『漁業經濟研究』第22卷 第1號(1975年 12月), 志村賢男「高度成長メカニズムと漁業」『同上』, 廣吉勝治「市場條件と漁業成長」『同上』 등에 자세히 분석연구되어 있으니 참고 바람.





<그림 2> 주요 漁港의 양륙량과 양륙가격(円/kg)의 변동(1970年→1980年)

注: 가격은 1990年=100, 全國消費者物價指數(總合)를 이용.  
 注: 변동을 10%이하는 정제로서 파악.  
 資料: 農林水産省『水産物流通統計年報』로부터 작성.

장의 경락가격)의 변동(1970년→1980년)을 나타내고 있다<sup>12)</sup>. <그림 2>에서는 1970년에서 1980년까지의 10년간 양륙량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산지와 양륙량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산지 등 크게 두가지 동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① WAKANAI(稚内), MONBECHU(紋別), ABASIRI(網走), RUMOI(留萌), KAMAISI(釜石), OHUNATO(大船渡), SIOKAMA(鹽釜)등의 산지는 양륙량의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들 산지는 이전 北洋漁業을 중심으로 전개해오면서 양륙량을 증가시켜왔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 200해리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양륙량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SIMONOSEKI(下關), HUKUOKA(福岡), KARACHU(唐津), NAGASAKI(長崎)등의 산지도 양륙량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 산지의 양륙량감소는 東海, 黃海를 주어장으로 하는 西日本원양어업以西底引網漁業의 쇠퇴와 철폐에 따른 어업생산량의 감소, 남획에 따른 저서어류의 자원수준저하에 따른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13)</sup>. 결국 이같은 산지의 양륙량감소는 주로 원양어업의 쇠퇴, 철폐에 의한 것이다.

한편 ②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양륙량증가를 보이고 있는 산지는 HACHINOHE(八戸),

12) 물론 단년간의 비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동향을 살펴보기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편 주요 산지의 10년간(1970년에서 1980년사이 10년간)의 양륙량변동계수는 평균 20-30%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水産物統計年報』).

13) 以西漁場の 어업자원에 관해서는 三栖寛『西日本における漁業資源』西日本漁業經濟學會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64-87(1988年 11月, 九州大學出版社)를 참고 바람. 여기에서는 西日本の 어업종류별 海區別의 CPUE(出漁日당어획량)를 구해 대상자원의 상태를 검토하고 있다.

KESENUMA(氣仙沼), ONAHAMA(小名浜), ISINOMAKI(石巻), NUMAZU(沼津), SAKAI (境), HAMADA(浜田), CHOUSHI 등 있다. 이들 산지는 주로 정어리, 고등어 등 大中型선망어업을 중심으로 하는 沖合漁業의 신장에 따라 양륙량증가를 보이고 있어, 명태를 중심으로하는 北洋漁業의 쇠퇴·철퇴에 따른 양륙량감소 산지와는 양륙어종을 달리하고 있다. 특히 이들산지에 있어 주요어종의 양륙변동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더욱더 명백히 나타난다. 예를들면, 1970년→1980년의 주요어종 양륙동향을 살펴보면(農林水産省의 『水産物流通統計年報』로 부터), ISINOMAKI(石巻)의 경우 명태는 138,073톤→20,000톤으로 대폭 감소한 반면, 정어리는 355톤→111,711톤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고등어는 37,382톤→67,137톤, 꽁치는 2,320톤→10,158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명태의 감소분을 정어리, 고등어 등이 대체 보완하면서 총양륙량은 245,877톤→309,305톤으로 증가경향을 보인다. 또 CHOUSHI의 총양륙량은 148,300톤→384,665톤으로 약2.5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고, 그 어종내역을 살펴보면 정어리가 5,457톤→211,016톤으로 큰폭의 증가, 고등어는 84,068톤→99,429톤, 꽁치는 199톤→35,649톤으로 상당한 신장을 보이고 있다.

이상과 같이 1970년대에 산지시장을 둘러싼 諸變化중 특히 지배적인 동향은 ① 東日本の 산지를 중심으로 북양명태 등 북양물의 양륙감소에 따라 산지시장이 축소재편되고 있는 움직임과 이와는 달리 정어리, 고등어, 꽁치 등을 중심으로 하는 沖合漁業의 확대에 따른 양육량 증가 動向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다시말해 이같은 어업생산현상을 각산지시장이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산지시장側의 格差構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중어종의 양륙량증가에 따라 산지가격(엔/kg)이 하락하는 정상현상은 量的확대를 도모하는 산지시장의 전형적인 움직임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② NAGASAKI(長崎), HUKUOKA(福岡)등과 같은 西日本산지 대부분의 경우는 以西底引網 등의 부진에 따라 양륙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이같은 양육량의 감소분을 가격면에서 대응(산지가격의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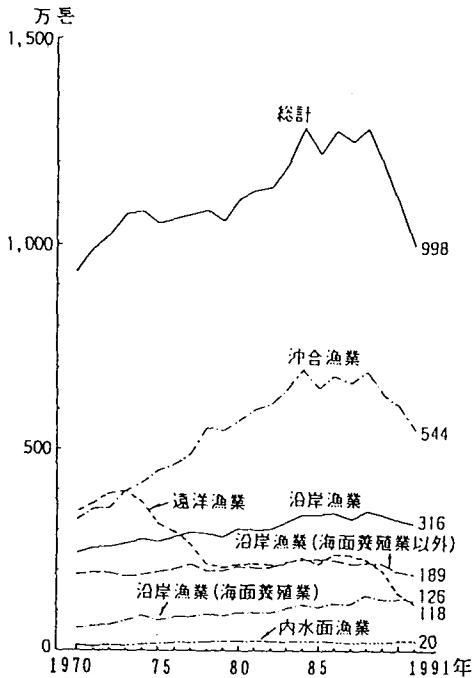
다시말해, 양륙량의 감소에 따른 산지가격의 상승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1970년대는 어업생산의 구조변화를 산지시장이 그대로 수용하면서 양륙량의 감소와 산지가격의 증가, 양륙어종의 대체에 의한 양륙량의 증가와 산지가격의 하락이라고하는 상식적인 산지시장의 구조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 (2) 1980년대이후의 產地市場

### 1) 產地市場의 양륙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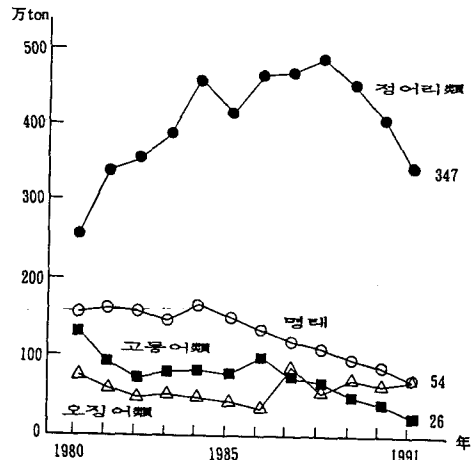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산물을 둘러싼 거시경제와 소비경제구조는 크게 변하고 있었다. 특히 1985년의 G5프라자(Plaza)합의 이후 엔高에 따른 相對的인 수입가격 저하 등의 영향으로 수입수산물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 수산물 소비의 高度化에 따라 高鮮度 活魚 鮮魚를 중심으로 하는 유통시스템의 발전과 食의 外部化 擴大 등 수산물 소비를 둘러싼 諸狀況은 크게 변하고 있었다.

한편 1980년대후반에 들어 원양어업 어획량은 더욱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특히 200해리 체제



<그림 3> 漁業部門別生産量の推移

資料：農林水産省「漁業・養殖業生産統計年報」



<그림 4> 海面漁業의 주요 4어종별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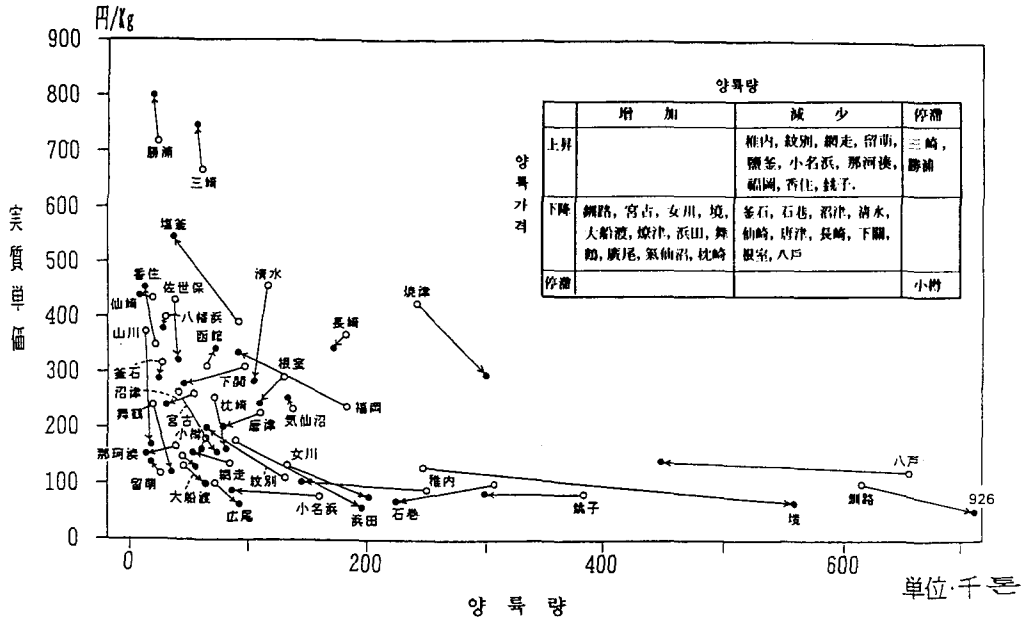
資料：農林水産省「漁業・養殖業生産統計年報」

이후의 外國水域의 어획 할당량은 격감되어 全外國 200해리 수역내의 어획량은 1978년의 246만톤, 1985년의 203만톤, 1989년의 95만톤으로까지 격감한다. 이와함께 원양어업 생산량도 1970년대 중반의 최고 400만톤→1980년의 210만톤→1990년의 149만톤→1991년의 118만톤까지 감소하게 된다.

沖合漁業은 1980년대에 들어서도 큰폭으로 증가하여 1988년에는 600만톤이상으로 一方的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로 단일어종으로 400만톤 이상의 어업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정어리 어획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1970년대 후반부터 10년간 이상에 걸쳐 원양어업을 대신해 총 어업생산량의 확대증가에 크게 기여해 온 沖合漁業이 1988년 이후 감소경향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3>. 특히 <그림 4>의 주요 4어종별 생산량 추이를 보면, 大中小型선망어업의 부진에 따른 어획량감소는 현저하게 나타나 정어리생산량은 400만톤대에서 200만톤대까지 격감하고, 고등어類의 어획량 역시 1980년의 130만톤에서 1990년의 27만톤, 1991년은 26만톤에 지나지 않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沖合漁業 생산량의 격감에 의해 국내총어획량은 1970년대에 1,000만톤을 넘었던 생산수준이 1991년 현재는 998만톤으로 재차 1,000만톤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1980년대 이후의 漁業生産의 전개과정 특징은 1980년대 후반부터 원양어업과 함께 沖合漁業 역시 감소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주요 산지시장의 양륙량 변동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는 주요漁港에 있어 양륙량과 양륙가격(엔/kg)의 변동(1980년→1990년)을 나타내고 있다<sup>14)</sup>. 1980년대 이후의 산지시장 동향과 1970년대 동향과의 相異점은 ①

14) 주요산지의 1980년에서 1990년까지 10년간의 양륙량변동계수는 20%정도로 나타나고 있다(「水産物統計年報」).



<그림 5> 주요 漁港의 양륙량과 양륙가격(円/kg)의 변동(1980年→1990年)

注 : 가격은 1990年=100, 全國消費者物價指數(總合)를 이용.

注 : 변동을 10%이하는 정제로서 파악.

資料 : 農林水産省『水産物流通統計年報』로부터 작성.

우선 80년대이후 양륙량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산지가 훨씬 많아졌다는 점이다. 예를들면, 우선 주로 원양어획물 산지인 WAKANAI(稚内), MONBECHU(紋別), ABASIRI(網走), RUMOI(留萌), KAMAISI(釜石), SIOKAMA(鹽釜), SIMONOSEKI(下關), HUKUOKA(福岡), KARACHU(唐津), NAGASAKI(長崎)등은 1970년→1980년의 양륙동향에서도 양륙량감소를 보였던 산지이기도 하다. 한편 HACHINOHE(八戸), ONAHAMA(小名浜), ISINOMAKI(石巻), CHOUSI, NUMAZU(沼津), SIMIZU(清水)등은 沖合漁業의 양륙물을 중심으로 하는 산지로, 이들 산지는 1970년→1980년동향에서 양륙량 증가와 함께 산지확대를 보였으나, 1980년→1990년동향에서는 양륙량 감소에 전환해 버린 것이다.

② 한편 1970년→1980년사이의 변화동향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산지의 양륙량감소와 산지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상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를들면 KAMAISI(釜石), ISINOMAKI(石巻), NUMAZU(沼津), SIMIZU(清水), SENZAKI(仙崎), KARACHU(唐津), NAGASAKI(長崎), SIMONOSEKI(下關), NEMURO(根室), HACHINOHE(八戸)등은 양륙량감소와 산지가격 하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거나, HAKOTATE(函館), SASEBO(佐世保), YAMAKAYA(山川)와 같이 양륙량이 정체된 상황에서 산지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는 곳도 있다. 이상과 같이 어업생산의 축소→양륙량의 감소→산지가격의 상승이라는 종래의 공식과는 다른 어업생산의 축소→양륙량의 감소→산지가격의 하락이라는 새로운 이상현상을 1980년대이후 산지시장의 구조변화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1980년대이후는 1970년대에 현저한 확대증가를 보였던 沖合漁業이 축소경향으로 전환하면서, 주

로 정어리, 고등어 등 대량생산 어종의 양륙에 크게 의존 확대해 온 대형산지시장들 대부분이 축소재편으로 전환하고 있는 점에 특히 유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대규모 漁港의 배후에는 산지어 시장, 대규모 냉동냉장고, 수산가공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산지양륙의 增大化에 크게 規定되면서 확대해 왔다는 사실이 内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현재 어업생산의 격감과 산지 양륙량의 감소에 따른 산지어시장의 규모축소재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규정되어 온 배후조건(어시장, 냉동냉장고, 수산가공시설)의 존립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지역산업경제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어업생산물의 가치실천 능력의 저하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산지시장을 둘러싼 諸변화에 따른 문제를 양육량의 大小뿐만 아니라, 이에 크게 규정되어져 온 배후조건들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再編動向에 관해 구체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今後의 산지 시장구조의 再編方向을 고려할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大型産地市場의 出荷構造變化

어업생산구조가 1970년대전반을 주도해 온 명태생산(주로 北洋漁業)에서 1980년대를 주도해 온 정어리, 고등어, 콩치생산(沖合漁業)으로 交替변화해 왔다는 점은 앞서도 설명하였다. 그러나 어업생산의 전체적인 저하경향에 따라 交替魚種마저도 양륙량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산지시장은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황하에서 양륙물의 용도별 배분중 특히 地域外出荷動向(1980년→1990년)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산지의 지역외출하 움직임은 첫째로, 총출하량과 주요어종의 출하량변화, 둘째로 출하지역의 변화로서 自縣출하, 6대도시의 중앙도매시장출하, 그외 지역의 출하상황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산지시장의 출하구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에 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 ① 出荷量の 변화

<표 1>은 주요 대형산지에 있어 1980년과 1990년의 出荷량을 비교한 것이다. 주요 15산지안에 4. YAIZU(焼津), 7. ONAHAMA(小名浜), 11. NUMAZU(沼津)를 제외한 산지는 출하량의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1. KUSIRO의 출하량은 9만톤(1980년)→9천톤(1990년)과 같이 상당한 격감현상을 보이고 있고, 3. SAKAI(境)는 12만톤→4만톤, 8. CHOUSI는 7만톤→2만톤, 9. HUKUOKA(福岡)는 14만톤→4만톤, 10. ISINOMAKI(石巻)는 6만톤→9천톤, 12. NAKASAKI(長崎)는 14만톤→2만톤, 14. HACHINOHE(八戸)는 14만톤→5만톤, 15. SIMONOSEKI(下關)는 5만톤→9천톤 등과 같이 출하량은 격감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출하량의 격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종은 정어리와 고등어이다. 우선 정어리의 총출하량은 1980년의 230,793톤에서 1990년의 168,908톤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등어의 총출하량도 1980년의 395,845톤에서 1990년의 90,391톤으로 격감하였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주요 산지에 있어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양륙량의 감소가 현저한 산지일수록 더욱더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표 1> 주요 大型産地市場의 出荷先別 出荷比率 (單位: %)

漁港	年 度	出荷量 (ton)	6大都市中央卸賣市場										地 域																	
			自 縣		東京·横浜		名古屋		京·大·神		計		北海道		東北		關東·東山		北陸		東海		近畿		中國		西國		九州	
			計	東京·横浜	名古屋	京·大·神	計	北海道	東北	關東·東山	北陸	東海	近畿	中國	西國	九州														
1 釜川路	1980	94,466	55.48	17.13	13.48	1.93	1.72	27.39	25.38	2.01																				
	1990	8,859	28.11	45.29	39.64	5.64	20.15	4.20	2.26																					
2 氣仙沼	1980	45,666	5.11	53.63	51.09	0.07	2.47	41.26	17.05	0.26	0.35										0.04							0.17		
	1990	14,657	4.76	55.67	54.55	0.19	0.93	39.56	11.19	0.65	0.18										0.01									
3 境	1980	127,588	1.60	23.69	9.78	4.34	9.57	74.70	0.38	0.33	14.69										3.59	2.28				31.24	19.16			
	1990	43,855	54.05	9.96	3.30	3.75	2.91	35.99	2.89	4.25	5.84										0.51	4.07				8.79	7.40			
4 燒津	1980	45,916	51.14	22.06	3.68	6.36	12.03	26.80	2.89	1.27	1.92										0.82	8.15				5.48	1.18			
	1990	93,157	36.10	33.43	12.95	7.79	12.70	27.27	0.90	3.22	6.09										2.97	0.66				5.01				
5 稚内	1980	20,315	70.12	14.72	14.72			15.16	12.76	1.66	0.04																			
	1990	14,741	83.39	11.08	8.81	0.41	1.86	5.53	4.3	0.53	0.6																			
6 釧釜	1980	32,565	32.69	15.96	11.82	2.08	2.06	51.35	1.74	3.06	1.17										0.06									
	1990	21,873	40.12	29.24	24.15	2.85	2.23	30.65	0.97	2.88	3.04																			
7 召名兵	1980	24,776	16.20	15.08	12.34	0.68	2.06	68.72	21.40	0.35	0.22																			
	1990	30,411	57.79	19.46	19.45			22.77	22.76	0.01																				
8 鉢子	1980	76,369	15.72	55.50	49.75	3.92	1.83	28.78	2.71	0.39	0.54															1.77	0.23			
	1990	22,294	17.14	66.43	38.74	8.42	19.27	16.43	1.31	13.06	1.69															1.53	31.76			
9 福岡	1980	143,234	21.53	17.71	4.38	2.69	10.64	60.76	2.23	2.27	2.52										0.75	17.6				4.68	32.06			
	1990	40,078	24.99	11.16	5.14	1.62	4.40	63.85	67.11	0.53	7.04										0.61	18.93								
10 石巻	1980	62,869	7.05	25.84	25.77	0.05	0.05	67.11	24.16	0.14																				
	1990	9,355	2.48	59.47	38.79	14.59	6.08	38.05	8.89	11.74	0.07										0.13									
11 沼津	1980	20,895	21.07	44.10	29.00	13.66	1.44	34.83	9.55	5.57	0.03										0.26	6.42				0.25	0.13			
	1990	24,271	36.05	31.77	15.43	5.28	11.06	32.18	4.32	2.50	0.58										0.49	0.49				0.50				
12 長崎	1980	142,653	15.23	50.78	11.85	4.60	34.32	33.99	2.23	0.16	0.16										5.43	11.43				0.07	15.95			
	1990	17,083	39.28	29.34	11.05	0.32	17.97	31.38	1.07	2.78	1.60										4.71	4.68				0.18	15.93			
13 根室	1980	41,028	86.99	12.65	11.43	0.61	0.61	0.37	0.37																					
	1990	21,631	90.38	4.72	4.44	0.09	0.18	4.90	4.67	0.23																				
14 八戸	1980	148,799	3.57	44.39	20.51	9.74	14.14	52.05	20.18	1.41	1.23										1.17	0.5				0.11	0.13			
	1990	50,465	10.43	49.15	34.06	5.17	9.92	40.42	12.39	1.59	0.93										0.92	0.28				0.42	0.32			
15 下關	1980	49,682	12.73	38.28	23.17	2.13	12.98	48.98	0.03	0.37	2.37										3.54	12.85				10.61	17.58			
	1990	8,835	25.01	50.42	22.16	14.72	13.54	24.57	0.02	0.13	0.69										0.03	3.56				12.18				

注: 構成比率는 各年 出荷量=100에 대한 비율이다.

1~4는 양륙량중가산지가격(円/kg) 하락, 5~9는 양륙량감소산지가격(円/kg) 상승, 10~15는 양륙량감소산지가격(円/kg)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산지이다.

資料: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 『水産物流通統計年報』로 부터 작성.

종전보다 산지의 다양한 가공설비와 냉동냉장고능력의 충실이라는 요인에 의해 산지의 재고기능, 가공기능의 정비가 한층더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② 出荷先の 변화

산지에 있어 魚價수준의 저미와 하락, 운송비용의 상승 등에 의해 이전보다 6대도시 중심의 지역 외출하조건이 저하되고 있다고 分析하는 보고가 있다<sup>15)</sup>. 1980년대이후 鮮魚의 지역의 출하량이 대폭 감소하고 있는 상황하에 出荷先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기로 한다.

앞 <표 1>의 주요대형산지에 있어 出荷先別 出荷비율을 살펴보면, 出荷先別 出荷비율의 특징적인 동향은 自縣방면의 근거리 出荷비율을 높여가는 産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自縣방면 출하비율의 변화를 살펴보면, 3. SAKAI(境)는 1%→54%(1980년→1990년), 5. WKKANAI(稚内)는 70%→83%, 6. SIOKAMA(鹽釜)는 32%→40%, 7. ONAHAMA(小名浜)는 16%→57%, 11. NUMAZU(沼津)는 21%→36%, 12. NAGASAKI(長崎)는 15%→39%, 13. NEMURO(根室)는 86%→90%등 높은 自縣방면 출하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같이 원래부터 비교적 높은 自縣출하비율을 보였던 산지이외에도 自縣출하비율을 높여가는 산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출하량 자체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중에 따라서는 自縣출하량이 늘어나고 있는 경향도 볼 수 있다. 예를들어 <표 2>의 주요대형산지의 魚種別 出荷量의 변화중에서 自縣 출하량의 변화를 살펴보면, 2. SAKAI(境)의 정어리는 295톤→21,024톤(1980년→1990년), 고등어는 219톤→1,474톤과 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5. WAKANAI(稚内)의 명태는 1,886톤→9,007톤, 7. ONAHAMA(小名浜)의 콩치는 528톤→8,005톤, 11. NUMAZU(沼津)의 전갱이는 90톤→2,423톤, 12. NAGASAKI(長崎)의 전갱이는 396톤→3,063톤, 13. NEMURO(根室)의 콩치는 0톤→15,597톤, 15. SIMONOSEKI(下關)의 전갱이는 211톤→927톤으로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自縣外地域의 출하중에 특히 6대도시 이외의 他地方地域 출하감소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앞<표 1>에서 확인해보면, 3. SAKAI(境)는 74%→35%(1980년→1990년), 6. SIOKAMA(鹽釜)는 51%→30%, 7. ONAHAMA(小名浜)68% 22%, 10. ISINOMAKI(石巻)는 67%→38%, 14. HACHINOHE(八戸)는 52%→40%등과 같이 많은 산지가 6대도시 이외의 他地方地域 출하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어, 결국 이들 산지는 1980년에 50%이상을 6대도시 이외의 他地方地域에 출하하고 있었던 것이 최근에 들어서는 50%이하로 저하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지역의 방면의 출하동향에 있어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自縣방면의 출하비율은 양륙량 감소를 보이고 있는 산지시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원거리 他地域등에의 출하비율은 전체적으로 저하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動向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① 산지시장에 있어 전체적인 지역의 鮮魚出荷의 不利化와 기능저하. ② 遠隔地까지 운송하는 비용

15) 산지시장에 있어 출하조건 변화에 관한 연구로서 廣吉勝治 「大型産地市場の再編成と水産物流通政策の課題」 『漁業經濟研究』 第26卷(1985年 8月)11-29, 廣吉勝治 「九州における水産物の市場・流通構造の現状と課題」 松本重男 『食糧資源の開發と利用に關する農業立地學的研究』(1988年 3月, 九州大學) 229-240을 참고. 여기에서는 특히 출하조건 변화에 따라 西日本の 주요산지의 출하지역이 6대도시중심의 대도시에서 산지 주변지역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산경영론집

<표 2> 주요 大型産地의 魚種別 出荷量의 변화

(단위 : 톤)

漁 港	魚 種	出 荷 量		自 縣		6大都市中央市場		他 地 域	
		(1980年)	1990年)	(1980年)	(1990年)	(1980年)	(1990年)	(1980年)	(1990年)
1 釧 路	정 어 리	2,894	240	2,894	240				
	꽁 치	4,480	2,937	1,303	697	2,962	1,740	215	500
2 氣仙沼	참 치(生)	5,379	3,239	259	159	2,570	1,526	2,550	1,554
	가다랭이	4,596	5,008	241	165	2,168	2,489	2,187	2,354
	고 등 어	8,043	9	301	9	4,436		3,306	
3 境	정 어 리	70,119	31,033	295	21,024	6,069	340	63,755	9,669
	고 등 어	29,184	3,702	219	1,474	4,188	1,472	24,777	756
4 燒 津	참 치(生)	6,725	3,805	1,786	1,217	3,488	1,408	1,451	1,180
	가다랭이(生)	3,226	553	902	155	820	171	1,504	207
5 稚 内	명 태	1,974	9,007	1,886	9,007	15		73	
	입 연 수	2,063	25	1,728	25	156		179	
6 鹽 釜	참 치	7,947	5,586	1,702	490	2,836	3,332	3,409	1,764
	가다랭이	1,837	1,328	926	739			911	589
7 小名濱	고 등 어	8,092	9	1,222	9	571		6,299	
	꽁 치	2,630	16,047	528	8,005	1,330	5,040	772	3,002
8 鉢 子	정 어 리	22,656	1,449	2,180	321	10,562	1,128	9,914	
	고 등 어	10,081	412	490	17	6,935	395	2,656	
	전 갱 이	12,442	5,013	1,991	1,456	5,004	2,315	5,447	1,242
9 幅 岡	고 등 어	58,216	18,370	12,830	3,568	920	1,410	44,466	13,392
	전 갱 이	18,290	15,757	3,072	5,573	2,255	1,255	12,962	8,929
10 石 卷	고 등 어	24,041	372	464	10	896	195	22,681	167
	꽁 치	6	3,497	6	180		2,061		1,256
11 沼 津	전 갱 이	264	7,657	90	2,423	100	4,236	74	100
	고 등 어	6,236	3,384	1,195	2,065	2,643	719	2,398	600
	가다랭이	6,541	5,725	475	2,265	2,468	1,450	3,598	2,010
12 長 崎	정 어 리	1,836	988	1,836	440		22		526
	전 갱 이	7,044	8,868	396	3,063	4,585	3,268	2,063	2,537
	고 등 어	5,292	5,964	2,767	2,845	649	1,380	1,876	1,739
13 根 室	꽁 치	3,883	17,137		15,597		960		580
	명 태	1,974	9,007	1,886	9,007	15		73	
14 八 戸	고 등 어	103,251	2,581	1,593	221	37,454	2,008	64,204	352
	오 징 어	6,179	2,570	675	302	4,232	1,789	1,272	479
15 下 關	고 등 어	7,688	249	1,041	209	4		6,643	40
	전 갱 이	675	2,065	211	927	190	922	274	216

注 : 1~4는 양륙량증가+산지가격(圓/Kg)의 하락, 5~9는 양륙량감소+산지가격(圓/Kg)의 상승, 10~15는 양륙량 감소+산지가격(圓/Kg)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산지이다.

資料 : 農林水産省統計情報部「水産物流通統計年報」로부터 작성.

이 산지 魚價보다도 훨씬 높다면 원거리출하에는 적절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이것은 高價格 魚種 자체의 양륙 감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③ 대도시에 못지 않게 지방지역의 鮮魚消費 증가 추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일 것이다. ④ 산지지역가공 및 Stock·Point의 충실에 따른 우회적인 유통출하



의 확대등도 他地域에의 鮮魚出荷 감소를 가속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4. 產地加工에 있어 輸入原料 供給條件의 強化

本來 水産加工의 성격은 어업생산의 일환으로 생산의 不規則性 變動性과 劣化性의 극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업생산에서 分離自立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따라서 수산가공이 어업생산에 강하게 규정되어져 온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가공시설 등이 原料立地를 중시해 產地에 存立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近年에 있어 산지 수산가공 생산과 종래의 어업생산에 의한 원료 공급면에 괴리현상이 생겨나고 있다. 즉 어업생산의 감소에 따라 산지의 원료 공급능력은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반면에, 실제 산지가공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逆相關的인 현상이 상당히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을 원료공급면에서 살펴보면, 국내어업생산의 감소를 계기로 처음에는 부족한 국내원료를 輸入水産物가 代替補完하는 성격에서, 나중에는 국내원료와 수입원료가 경쟁하는 성격으로 변화 전개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심지어 국내원료가 크게 부족한 것도 아닌데도 수입원료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같은 수입수산물원료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일본국내 가공생산안에 어떠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로 하자.

<표 3>은 주로 가공원료가 되는 輸入水産物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하는 <표 3>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① 주로 연제품의 가공원료인 명태(수리미)의 수입은 1980년의 9,348톤→1990년의 196,160톤→1991년의 204,560톤으로 10년 사이에 20만톤대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만톤중 12만톤이 명태를 원료로 하는 수입 냉동수리미로, 이는 1991년 현재 국내수리미 총공급량 42만톤중 약3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일본국내에 있어 산지시장의 명태공급조건을 연제품 가공생산의 대표적인 산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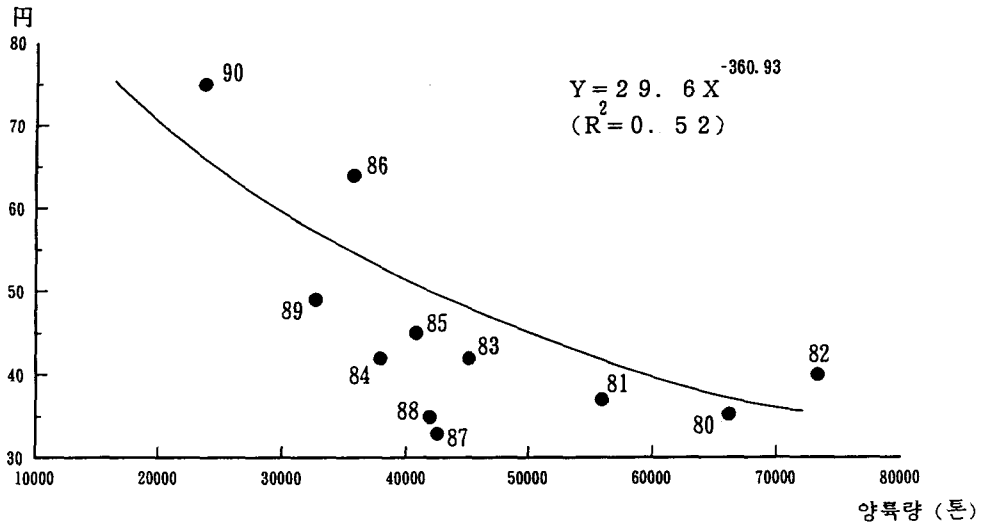
<표 3> 주요 가공원료가 되는 水産物輸入量의 推移 (單位: 톤)

	1980	1985	1988	1990	1991	1980=100
명태(수리미)	9,348	112,557	209,432	196,160	204,560	2,188
명태알(原卵)	10,435	23,028	19,543	30,157	35,599	341
청어	32,110	71,766	79,450	75,696	74,393	232
청어알	5,810	12,869	18,955	22,060	17,097	294
오징어	94,375	112,883	101,837	114,276	98,020	104
전갱이	5,878	29,423	45,104	34,720	38,555	656
고등어	211	1,155	38,328	70,754	194,064	91,973

자료: 水産廳水産流通課「水産貿易統計」로부터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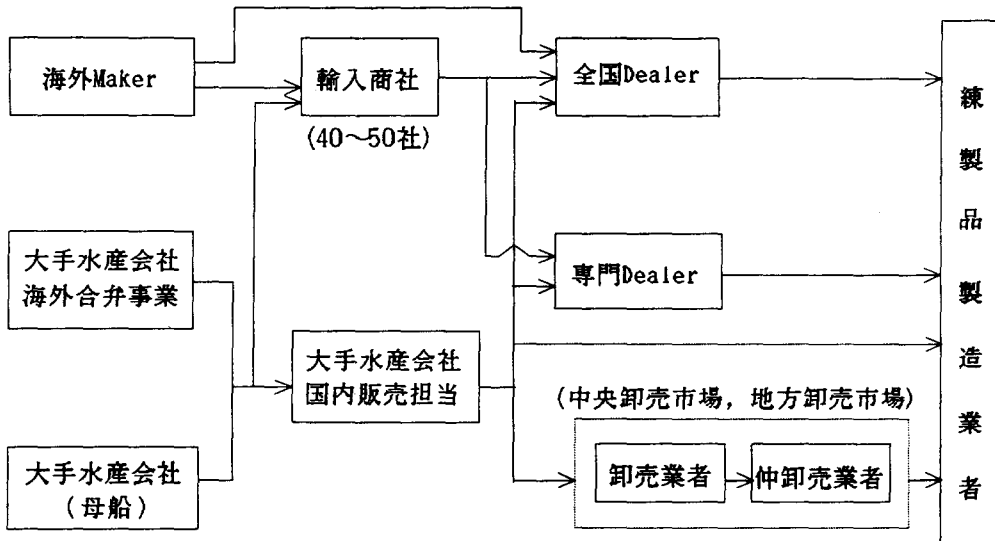
16) 米田一二三은 수산가공의 기본적인 성격을 산업으로서 어업이 먼저 先行하고 어업생산물의 상품생산완결의 가치실현을 추구하기 위하여 어업생산의 일환으로 그 내부에 가공과정을 가질 수 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필요성에 따라 가공기능이 어업생산으로부터 분리자립화한 것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米田一二三「水産加工의 基本的女性格と構造變化」『漁業經濟論集』第27卷(1986年 7月)을 참고 바람.

수산경영론집



<그림 6> 石巻에 있어 명태(生)의 年間양륙량과 평균가격의 相關關係

자료 : 『水産物流通統計年報』로부터 작성.



<그림 7> 洋上冷凍수리미의 유통경로

ISINOMAKI(石巻)를 예로 살펴보면<그림 6>과 같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명태의 산지시장조건은 200해리이후 지속적인 어업생산량의 감소에 따른 산지시장의 양륙량격감과 산지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어 국내 원료공급력의 저하와 함께 불안정적인 側面을 읽을 수가 있다. <그림 7>은 냉동수리미의 유통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周知와 같이 近年에 있어 自國의 母船에 의한 어업생산과 수리미가공생산은 격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할 수 없는 공급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러시아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외 합병사업도 상대국의 쿼터감소정책과 소극적인 대응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이 역시 앞으로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국의 어업생산과 수리미가공 등 수입

수리미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그림 7>의 上段에 표기된 洋上 冷凍수리미원료의 주요 유통경로는 이전의 자국 어업생산이 배제된 해외Maker→수입상사→Dealer에 의해서 연제품 제조업자에 공급되는 경로가 지배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다시말해 今後 수입 수리미의 동향은 절대증가를 보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② 명란은 1991년 현재 3만5천톤의 原卵이 수입되고 있으며, 이는 198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특히 近年에는 輸入先에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종래의 JV(Joint Venture)에 의한 輸入과 韓國으로 부터의 수입은 크게 후퇴하고 있고, 이에 반해 러시아産, 미국産 冷凍物이 큰폭으로 증가하여 현재 이들이 수입 명란(原卵)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현재 年間 국내 명란가공생산량은 약4만톤으로 原卵수입량이 3만5천톤 정도임을 감안하면 가공 제품비율이랑 재고량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명란가공에 차지하는 수입 명란(原卵)의 위치는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다.

③ 청어 특히 수입 청어알은 KAZUNOKO(일본청어알 가공제품명)의 原料로서 주로 캐나다産 수입原卵과 미국産 Round청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예를들면 현재 年間 KAZUNOKO 총생산량은 약15만톤으로 그 원료가 되는 原卵수입량이 17만톤정도 공급되고 있으니 제품비율과 재고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KAZUNOKO 가공생산의 대부분이 수입原卵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④ 전갱이類의 국내어업생산량은 1980년의 14만5천톤에서 1991년에는 31만5천톤으로 절대감소한 것은 아니다. 한편 수입전갱이는 사이즈의 規格性和 價格低位性등의 장점을 무기로 하면서 1980년에 5,878톤 수입되었던 것이 1991년에는 38,555톤이 수입되어 6배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수입실적을 국내 전갱이 가공 생산량에 대비해 보면, 年間 전갱이 가공 총생산량은 약5만톤내지 6만톤으로 이에 대해 약4만톤 가까운 원료가 수입되어 온 것으로 보아도 수입원료의 위치가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⑤ 주로 鹽藏品, 鹽干品의 원료가 되는 수입고등어의 급증은 近年의 국내어업 생산격감에 의한 것으로 1980년 겨우 211톤에 지나지 않았던 수입고등어가 1991년에는 194,064톤이 수입되어 현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주로 노르웨이로 부터 수입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近年에는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로 부터도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이와같이 대부분이 가공원료 용도로서 약20만톤 가까이 수입된 고등어는 年間 국내 고등어 가공 총생산량이 약8만톤임을 고려해 볼때 수입고등어의 위치는 결코 국내원료 공급조건외 보완적인 성격이 될 수가 없으며, 오히려 가공원료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예를들어 현재 鹽藏·鹽干고등어가공생산에 있어 일본 전국의 약80%를 차지하고 있는 CHOUSI 지역은 가공업자의 90%이상이 수입고등어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고, 설사 지역여시장에 고등어양륙이 있다하더라도 이미 가공업자는 그것을 원료로 사용하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sup>17)</sup>. 그것도 그럴것이 가공원료로서 수입고등어의 1년간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不規則적이고 不安定의인 국내고등어의 양륙을 기대하고 있는 가공업자는 거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점이 今後 어업생산에 규정되어온 산지시

17) 張瑛秀 「前掲書」(1993年 8月)을 참고.

장구조를 고려할 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산지의 水産加工에 있어 輸入원료는 국내 가공생산의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국내 생산원료의 보완적인 성격을 넘어 수입원료가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왜 이와같이 이전에는 不規則의이고 不安定的인 국내 원료공급 조건하에서도 存立하여 온 산지가공이 近年에 와서 수입수산물에 크게 의존하면서까지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공급조건을 요구하고 있는가는 원료 공급면만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점에 있어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배경요인으로는 消費市場構造의 변화가 현단계의 產地加工構造 변화를 살펴볼때, 상당히 중요한 Factor임을 강조하고 싶다. 이같은 시점을 문제의식의 전면으로 산지지역의 加工經營構造의 구체적인 Case - Study 분석은 별도 논문에서 소개하기로 하고 以下에서는 消費市場의 변화를 전체적인 동향으로서 살펴보기로 한다<sup>18)</sup>.

### 5. 消費市場의 諸動向과 產地加工

近年에 있어 消費市場側의 변화는 현저하여 특히 소비자의 행동변화는 外食産業의 성장과 量販店 등의 확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생활구조의 변화, 質을 추구하는 소비志向의 고조 등으로 外食産業의 年間판매액은 약28조엔까지 확대 성장하고 있으며, 그 중 食材費가 약40%를 차지하고 食材費안에 수산물은 약15%는 차지하고 있어, 외식산업에 있어 수산물수요는 연간 약1조7천억엔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sup>19)</sup>. 1990년 大日本水産會조사에 따르면 외식산업 메뉴안에 水産加工品은 冷凍切身(Cutting)이랑 필렛(Fillet)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같은 수산가공품을 중심으로 하는 魚介類 메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결국 이같은 현상을 外食産業측에서 보면 안정적인 食材조달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다. <표 4>는 外食業者의 生鮮식료품 구입先別 構成比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크게 나누어 보면 도매시장과 도매시장외로 부터의 食材구입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도매시장외에서 食材구입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그 비율을 살펴보면 生鮮은 44.6%, 冷凍品은 77.2%, 鹽干加工品은 61.3%를 도매시장외로부터 구입하

<표 4> 外食業者의 水産物購入先別 構成

(單位: %)

區分	合計	中央卸賣市場			地方卸賣市場 卸賣業者	計	卸賣市場外						
		計	卸賣業者	仲卸業者			場外問室	水産會社	漁協	產地出荷業者	商社	直輸入	그 외
生鮮	100.0	53.9	5.5	48.4	1.5	44.6	12.7	12.3	0.0	1.8	0.2	0.0	17.6
冷凍	100.0	19.2	10.9	8.3	3.6	77.2	17.9	34.6	5.1	2.6	5.4	0.0	11.6
鹽干加工	100.0	34.9	8.9	26.0	3.7	61.3	17.1	6.2	0.0	16.8	8.3	0.0	12.9

資料: 食品需給研究センター「卸賣市場流通セッション調査」(1990年 3月)

18) 張瑛秀「前掲書」(1993年 8月),(1994年 6月)을 참고.

19) 자세한것은 水産廳水産物流通課水産加工室「21世紀水産加工ビジョン檢討會報告書」(1993年 5月)을 참고바람.

<표 5> 消費者의 수산식품 구입처

(單位: %)

店 鋪 品 目	생선	슈퍼	데 파 트	生 協	이동	편 이 점	그 외	無 回 答
	전문점	퍼			판매			
生鮮魚介類	30.4	53.2	4.7	7.9	0.5	0.1	0.6	2.3
刺身(사시미)	45.7	39.8	6.3	3.5	0.9	0.1	1.1	2.5
鹽干加工品	17.5	62.3	4.7	9.8	0.4	0.2	1.8	3.3
조리된 수산식품	14.8	41.0	9.8	3.0	0.0	0.6	7.3	23.4
통조림	2.7	75.9	2.1	3.6	0.0	1.9	2.7	16.0

注: 生鮮魚介類는 冷凍品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조리된 수산식품은 구운생선이나 튀김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資料: 大日本水産會「水産物消費調査(首都圏主婦アンケート)」(1992年 12月)

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場外도매상, 水産會社, 산지출하업자로 부터의 구입이 중심이 되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식품 구매행동에 관하여 보면 <표 5>와 같은 설문지 조사결과가 참고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소비자의 수산물 구입행동은 종래의 수산물취급 전문점에서 슈퍼, 生協, 데파트 등과 같은 量販店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鹽干加工品은 62.3%, 冷凍食品은 70.4%, 통조림은 75.9%를 슈퍼에서 구입하고 있으며, 심지어 生鮮魚介類와 같은 수산물도 소비자의 53.2%가 슈퍼에서 구입하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같이 量販店에서 수산물을 구입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슈퍼중심의 소비자 행동변화를 소위 One-Step Shopping志向으로서 표현하고 있으나, 量販店側에서 보면 잘 팔리는 상품의 안정적인 구입과 他社와의 상품차별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품조달 시스템의 개척 개발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近年 量販店등에 있어 상품관리, 검색도, 배송 등은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에 의해 파악된 판매정보를 기초로 EOS(온라인 발주 시스템)를 이용해 발주를 하고 있는 등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量販店등은 大手를 중심으로 自社에서 상품의 기획 개발과 상품의 구입처 개척·개발 등 여러방면의 상품조달 시스템을 확립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같은 量販店의 상품구입행동에 있어 수산물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표 6>의 量販店의 水産物 구입先別 구성비로부터 살펴보면, 生鮮品の 22.1%, 冷凍品の 55.5%, 鹽干加工品の 42.5%를 도매시장외로부터 구입하고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60%~70%가 冷凍品과 鹽干加工品 등의 구입을 슈퍼와 같은 量販店에서 행하고 있고, 量販店은 수산가공품 구입의 약50%전후를 장외도매상, 水産會社, 산지

<표 6> 量販店의 水産物 구입先別 構成

區 分	年間 仕 入 金額	中央卸賣市場		地方 卸 賣 市場	計	卸賣市場外로 부터 구입						
		卸賣 業者	仲卸 業者			商社 問屋	大手 水産 會社	漁協 漁運	産地 出荷 業者	輸入 商社	直 輸 入	그 외
生 鮮	100.0	14.2	40.6	23.1	22.1	9.8	4.2	2.8	3.7	0.6	0.4	0.3
冷 凍	100.0	14.6	16.8	13.1	55.5	40.2	9.4	0.3	0.6	2.8	1.2	0.9
鹽干加工	100.0	10.0	29.5	18.0	42.5	31.0	4.7	0.5	3.5	0.9	0.0	1.8

資料: 食品需給研究センター「卸賣市場流通セクション調査」(1990年 3月)

수산경영론집

<표 7> 水産加工種別經營體數의 推移

(單位：經營體, (指數))

	1980	1982	1984	1986	1988	1989	1990
實經營體數 (指數)	21,473 100	20,393 95	19,763 92	19,133 89	18,156 85	17,822 83	17,290 81
냉동식품	100	97	94	92	90	91	89
연 제 품	100	113	134	135	186	182	171
냉 동 품	100	110	113	117	136	134	133
소 건 품	100	77	74	67	61	58	52
엽 간 품	100	93	94	89	88	85	84
자 건 품	100	100	90	85	78	76	75
엽 장 품	100	94	93	88	89	87	84
훈 제 품	100	92	119	123	141	127	124
節 類	100	91	89	86	85	83	82
그 외	100	101	100	97	97	96	93
魚 油	100	86	72	56	62	49	48
飼 肥 料	100	75	79	73	57	56	58

資料：農村水産省統計情報部「水産物流通統計年報」로부터 작성.

출하업자로부터 행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상과같은 소비시장구조 변화를 산지가공업자도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量販店과의 거래체결로 판매품목이랑 수량을 EOS시스템 도입으로 발주 납품을 하고 있는 가공업자도 나타나고 있다. 또 슈퍼랑 외식산업과 거래하고 있는 도매상과 결속하여 가공원료 구입과 상품판매의 양면을 도매상에 의존하고 있는 가공업자도 나타나는 등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움직임을 많은 산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국 현재 산지 수산가공 형태는 종래와 같은 지역 산지어 시장의 양륙물을 원료중심으로 하는 한정된 품목을 가공해서 消費地都賣市場에 출하판매하던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반면에, 多元의인 원료구입과 多樣한 품목을 행하면서 量販店과 같은 場外流通에 의존하는 새로운 산지가공형태 역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산지시장에 있어 특히 수산 가공경영은 원료공급면과 소비시장면의 양면으로 부터의 영향에 의해 크게 재편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향을 <표 7> 수산가공종류별 경영체數의 추이에서 확인해 보면,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총 가공생산량은 감소보다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총 가공경영체수는 1980년의 21,473경영체에서 1990년의 17,290으로 약20%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감소가 현저한 것은 약 50%전후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는 素干品, 魚油, 肥飼料 등으로 정어리와 관련있는 가공경영이 중심이다. 한편, 주로 명태, 고등어, 연어, 송어 등을 원료로 하는 연제품, 鹽干, 鹽葬 등의 가공경영체는 약20%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가공생산량은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신규참여를 보이고 있는 가공경영도 있어, 冷凍食品은 약30% 가공 경영체 증가를 보이고 있고 훈제는 약20%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일률적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국, 수산가공구조는 원료공급면과 소비시장면의 論理에 의해 「加工경영체감소-加工생산량감소」, 「加工경영체감소-가공생산량증가」, 「加工경영체증가-加工생산량증가」등 다양하면서도 重

層的인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6. 結論을 대신하여

지금까지 本論文에서 고찰하고자 하였던 論旨을 다시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日本에 있어 水産物流通·市場論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시대의 주요 과제와 수산물시장을 보는 視點을 정리함을 통해서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수산물 유통·시장문제가 어떠한 史的 흐름속에 위치·발생하고 있으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보았다. 특히 종래의 연구는 어업 생산부분에 중점을 둔 산지시장의 諸문제를 다루어 온 研究와 생산과 소비의 중간단계로서 수산물유통·시장을 보는 소위 產地問題와 中間流通段階論的 研究와 같이 비교적 독립된 영역문제로서 인식·취급되어 온 듯한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今日 수산물유통·시장문제는 공급부분의 多元化(수입수산물의 증가와 확대, 商社와 같은 非漁業生産者 등에 의한 수산물공급의 확대증가 등)와 末端 市場 消費部門의 多樣化(量販店의 규모확대, 外食産業의 성장, 소비자의 다양한 食문화등)는 종래의 供給側→消費側과 같이 一方的으로 흐르던 흐름이 今日는 末端消費側의 “企畫된 系列的 流通시스템 論理”의 산지시장에의 介入현상(消費側의 강한요구)등의 逆흐름이 生産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이같은 상황하에 특히 어업생산의 1차가치실현장인 산지시장의 구조변화동향(산지가공을 포함해서)을 중심으로 論旨을 전개하여 보았다.

今日에 있어 산지시장의 동향 특징으로서 大型產地市場의 양륙량과 산지양륙가격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현상은 산지어시장이 양륙량감소에 전환하는 과정에 있어 산지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다(이같은 동향은 산지양륙가격의 저미로서 대표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변화내용으로 양륙물의 分散 配分기능의 변화(전반적인 鮮魚 出荷機能저하, 원거리출하의 감퇴와 근거리 自縣 지역출하의 기능적 부상, 산지어시장의 지역가공산업에의 원료공급기능 저하 등)에 주목하여 보았다.

특히 1980년대이후 산지시장 동향의 특징으로서 산지어시장의 양륙량감소에도 불구하고 양륙가격 하락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산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諸認識中에 이 단계에 있어 日本경제의 구조적불황 영향을 산지시장側 역시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경기후퇴에 따른 산지시장의 변화」로 보는 관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論文에서는 이같은 관점과는 認識을 달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同時期에 있어 지역양륙량의 동향여부와 관계없이 基調로서 維持내지는 역할 기능의 上昇현상을 보이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는 산지역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방적인 산지시장 後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산지어시장에 있어 수입 수산물의 취급확대 등으로 나름대로 재편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움직임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산지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상은 大數的인 특징으로서 산지시장을 파악해 보았으며, 그 배경에 存立하면서 산지어시장의 양륙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전개하고 있는 產地加工産業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하여 보았던 것은 종래와 같이 不規則的·不安定的인 원료공급 조건하에서 유지 전개해 왔던 산지가공경영이 近年에 와서 規則的이고 安定的인 원료공급조건(가공원료로서 수입수산물의 증가)을 요구하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현상의 배경으로 고려하여 본 것이 末端市場에 있어 量販店과 外食産業 등이 성장 확대하는 과정으로, 本論文에서는 이들의 水産物流通에의 介入현상을 豫見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이미 언급한 필자의 논문 등에서 이점을 事例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다시말해 現段階에 있어 水産物市場問題는 종래와 같은 어업생산에 크게 규정되었던 단계에서 末端消費側의 論理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단계로 移行하고 있음을 認識할 필요가 있지는 않는지를 문제 제기하고 싶다.

### 參考文獻

- 岡本清造, 「水産物流通機構の問題」, 『淡路島の活魚市場機構』, 1952年, 水産研究會.
- 黒澤一清, 「現階層における漁業協同組合共販運動の一断面」, 『商品流通と協同流通と協同組合機能』, 1958年 4月, お茶の水書房.
- 渡邊宏彦, 「漁獲物流通機構の變化と漁協共販」.
- 長谷川彰・渡邊川彰, 「市場制度に關する研究」, 1956年, 水産研究會, 『上書』.
- 長谷川彰, 「水産物流通機構長谷川彰形態と性格」, 『漁業經濟研究』第24卷 第3・4合併號, 1979年 3月.
- 倉田亨, 「産地流通加工據點整備と魚協長谷川彰役割」, 『西日本漁業經濟論集』第17卷, 1976年.
- 「鮮魚行商小賣業者長谷川彰實能と機能」, 『農林業問題研究』第4號, 1965年 12月.
- 秋谷重男, 「中央都賣市場“セリ實能の功罪」, 『日本經濟新聞社』1981年.
- 「産地直結」, 日本經濟新聞社, 1978年.
- 廣勝吉治, 「水産物における流通支配の價格形成メカズムにあたる影響について」, 東京都民生活局, 1978年 6月.
- 「市場外流通の實態とその都賣市場におよぼす影響に關する調査研究報告書」全國中央市場水産物都賣業者協會, 1980年 4月.
- 「水産物都賣市場機構再編成の現段階的性格」, 『漁業經濟研究』第26卷 第4號, 1981年 12月.
- 廣吉勝治, 「大型産地市場の再編成と水産物流通政策の問題」, 『漁業經濟論集』第26卷, 1985年 8月.
- 秋谷重男, 「水産物の需要構造」, 『漁業經濟研究』第35卷 第2・3號, 1991年 2月.
- 廣吉勝治, 「水産加工業の振興の方策に關する調査報告書」, 下關市, 1986年 2月.
- 「21世紀における冷凍品流通の展望PART・1」, 東京水産振興會, 1989年.
- 「21世紀における冷凍品流通の展望PART・2」, 東京水産振興會, 1990年.
- 中居裕, 「水産加工業における構造變動と動態變化」, 『公庫月報』第502號, 農林漁業金融公庫, 1992年 10月.
- 張瑛秀, 「大型産地における水産加工業の展開と構造再編と動向」, 『漁業經濟論集』第34卷 第1號, 1993年 8月.
- 「水産加工經營の構造再編の動向と特徴」, 『漁業經濟研究』, 第39卷 第1號, 1994年 6月.
- 大海原宏, 「戦後日本漁業の生産力展開」, 『漁業經濟研究』第22卷 第1號, 1975年 12月.
- 三栖寛, 「西日本における漁業資源」西日本漁業經濟學會, 『轉機に立つ日本水産業』, 1988年 11月. 九州大學出版社.
- 廣吉勝治, 「大型水産市場の再編成と水産物流通政策の問題」, 『漁業經濟研究』第26卷, 1985年 8月.
- 廣吉勝治, 「九州本における水産物の市場・流通構造の現狀と問題」, 1989年 3月, 九州大學.
- 松本重男, 「食糧資源の開発と利用に關する農業立地學的研究」, 九州大學.
- 米田一二三, 「水産加工の基本的な性格と構造變化」, 『漁業經濟論集』第27卷, 1986年 7月.
- 水産廳水産物流通課 水産加工室, 「21世紀水産加工ビジョン検討會報告書」, 1993年 5月.



## **The Development of Fish Market Theory and Market Trends in Japan**

- Market Trends in the Production -

Jang, Young - Soo

### **Abstract**

Recently, it has become a matter of importance concerning a distribution system of the fisheries products in our day. Especially, this paper disregards the fact of changes in demand and distribution system for fisheries products under the period of the high economic growth in Japan. The commercial capital of fisheries products has been modernized by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market place. The distribution system of fisheries products will rather play an important role than now. In this state,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development of fish market theory and attempts to explain the market trends in the production in Japan.